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찬성 160표 · 반대 134표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수장 동시 공백 막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한달 가량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치 강화를 약속했다. 야당은 당청의 일방통행을 지적하면서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방지를 주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역시 국회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제대로 보여주셔서, 사법 공백을 메워주시는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승리는 우리 헌정 민주주의사에 험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많은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 그렇다고 이 분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한 인사를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 12~1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동성애 옹호 논란도 불거졌다. '부대법관 출신' '기수 파괴' 등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이념 편

향성, 동성애 옹호 등을 이유로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이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향한 찬반진영의 리브롤도 이어졌다. 당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인준 협조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부결 협조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당초 우려됐던 대법원장-헌법재

판소장 수장 동시 공백은 피하게 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는 28일이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24일) 전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21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오전 5개 국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고 의장 주재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21일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뉴스

안호영, 완주 '말골재 터널' 설계비 5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완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말골재 터널 공사를 해결했다.

21일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도 17호선 완주군 운주~화산 위험구간 시설개량사업으로 운주면 말골재 터널 공사에 필요한 설계비 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말골재 터널 공사는 운주면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대운산 도립공원 활성화 등 전북과 완주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십 수 차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사업 타당성을 설득해 설계비 5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181억원이 투입되는 국도 17호선 말골재 터널공사가 완료되면 전복과 총칭권 간의 접근성이 개선돼 교류확대는 물론 대운산 도립공원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간 균형발전과 전북 북부내륙 지역의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안 의원은 "운주~화산 간 국도 시설개량사업은 완주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성장 동력인 만큼 박성일 군수와 적극 협조해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잔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이낙연 "석면 교실" 폐쇄 정밀청소... 위협 엄중 조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전류 석면 논란이 된 교실을 폐쇄해 정밀청소를 진행하고, 석면 잔재물이 남은 원인을 규명해 위협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학교에서 석면 해체 작업이 끝난 뒤에서 석면 분진이 검출된다고 지적됐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 총리는 "문제 된 교실을 모두 폐쇄하고, 정밀청소 뒤에 학부모 등 관계자를 참여한 가운데 실내 공기질을 엄격히 측정하라"며 "추석연휴 뒤에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한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군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영향을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에 최근 6년간 4조 707억 투자

김광수 의원, "투자 확대는 심각한 문제... 이번 기회에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국민연금의 정서에 맞지 않은 졸속 위안부 합의, 군함도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일본 전범기업에 총 4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1년 2,005억원, 2012년 3,790억원, 2013년 6,008억원, 2014년 7,646억원, 2015년 9,315억원, 2016년 1조 1,943억원 등 최근 6년간 일본 전범기업에 총 4조 707억 원을 투자했다.

2016년 투자금액은 1조 1943억원에 달해 2011년 2005억원 대비 무려 5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투자 금액이 많은 상위 5개 전범기업을 살펴보면, △ TOYOTA MOTOR CORP 2386.5억 원 △ SHIN ETSU CHEM CO LTD 1299.4억 원 △ KOMATSU LTD 969.1억 원 △ FUJI HEAVY INDUSTRY 883.2억 원 △ NISSAN MOTOR CO LTD 822.4억 원 순이다.

특히, 얼마 전 영화로 개봉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군함도'라 불리는 일본 하시마섬에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살펴보면 △ MITSUBISHI ELEC CORP 430.6억 원 △ MITSUBISHI HEAVY INDS LTD 213.2억 원 △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38.1억 원 등 총 681.9억 원을 투자해 2015년 474.6억 원 대비 44% 증가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졸속 합의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국회의 지적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공적투자, 사회적책임 투자가 강조되는 시대인 것도 감안해 국민연금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검찰, '국정원 사찰' 박원순 내주 고소인 조사 검토

검찰이 국가정보원 사찰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이르면 다음주에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댓글부대 활동비 영수증을 2차로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한 가운데 이 수사의 '몸통'으로 꼽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다음주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박 시장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며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 및 사찰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했다. 박 시장측 변호인인 민병덕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박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박 시장과 실제적으로 서울시까지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원 전 원장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경과에 따라 부분적인 조사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

전두환 추징금 3억3000만원 추가 환수

검찰이 전두환(86) 전 대통령 추징금 중 3억3000만원을 최근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특별환수팀에서 최근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 소유로 돼 있는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 800평을 매각했다"며 "이에 따른 환수액은 3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억3000만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2205억원 중 약 53%인 1155억원을 환수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한 환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웃어봐요! 치~즈~ 행복 쪽~~^^

추석과 함께하는 2017 임실N 치즈축제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추석	5	6	7
8	9	10	11	12	13	14

천만송이 국화전시, 전국어린이 요리경연대회, 제2회 전국어린이치즈창작동요대회, 전국 스타셰프 챌린지(최현석셰프), 국가대표 '왕' 치즈피자, 치즈나라 치즈범벅 모자이크, 치즈떡볶이 나눔행사, 치즈 및 낙농체험, 국내·외 치즈전시관, 임실N치즈피자 등 다양한 치즈음식

주최 임실군 주관 임실N치즈축제제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www.imsifestival.com 063. 643. 3900

2017 축제 보조금지원